

코스피 614곳 영업익 62% ↑... 삼성전자 제외맨 42% 수준

2024 상장사 결산

연결기준 매출 2918조, 5.43% ↑
 흑자기업 21곳 늘어나 총 477곳

전기·전자 매출액 19% 늘어나고
 부동산 등 5개 업종 매출액 하락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24사업연도 결산 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14곳(금융업 등 89개사 제외)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2918조37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3%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196조8161억원으로 61.68% 늘고, 순이익은 142조8091억원으로 81.59%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크게 성장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24사업연도 결산실적〉

(단위: 억원, %)

구분	개별(별도) 기준			연결 기준		
	2023년	2024년	증감률	2023년	2024년	증감률
매출액	14,787,352	15,739,958	6.44	27,679,622	29,183,719	5.43
영업이익	387,090	1,062,234	174.42	1,217,314	1,968,161	61.68
법인세차감전순이익	718,525	1,173,087	63.26	983,152	1,805,147	83.61
순이익	726,281	1,025,030	41.13	786,440	1,428,091	81.59

[자료=한국거래소]

6.74%, 4.89%로 각각 2.34%포인트, 2.05%포인트 늘어났다.

다만 전체 상장사 중 매출 비중이 10.3%에 달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영업이익 증가율은 42.48%로 떨어진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각각 4.32%, 42.48%, 71.57% 증가했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연결부채비율은 지난해 112.77%로 전년 말(111.72%) 대비 1.05%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다만 수익성이 개선된 만큼 흑자기업은 전년 대비 21곳(3.42%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614곳 중 477곳(77.69%)이 흑자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의 매출액 증감률이 19.13%로 가장 높았으며, 운송·창고(12.76%), IT서비스(9.41%) 등 15개 업종의 매출액이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등 5개 업종은 매출액이 줄어 들었다. 전기·전자 업종은 영업이익(755.01%)과 순이익(380.42%)도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43개사)의 경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4.29%, 12.51%씩 증가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금융지주(9.80%), 증권(60.83%), 보험(11.50%) 등의 순이익이 늘어난 반면, 은행(-0.58%)과 기타(-8.92%)는 감소했다.

코스닥 상장사들도 내실있는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스닥 1203개사 기업의 총 연결 기준 매출액은 273조3467억원으로 전년 대비 4.48% 증가했다.

다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9조6403억원, 3조4817억원으로 각각 2.71%, 13.45%씩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3.53%, 순이익률은 1.27%로 전년 대비 각각 0.26%포인트씩 하락했다. 부채비율은 104.93%로 전년 말 대비 0.33%포인트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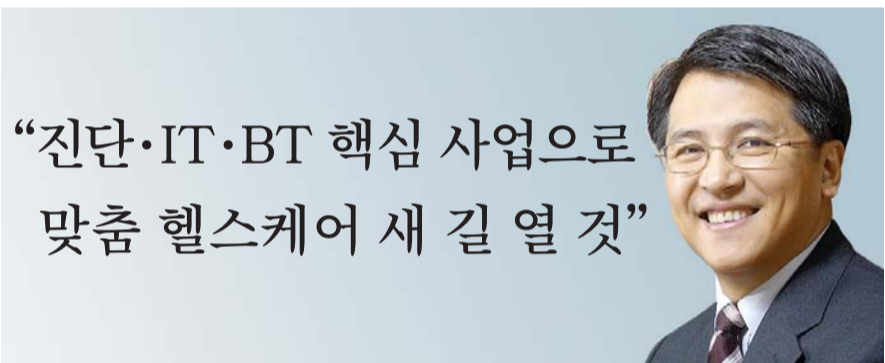
수익성이 부진했던 만큼 적자기업도 전년 대비 30곳 증가했다. 분석 대상 1203개사 중 692곳(57.52%)은 순이익 흑자를 실현했으나, 511곳(42.48%)은

적자로 집계됐다. 상장사 5곳 중 2곳 이상이 순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적자를 기록한 511곳 중에는 코스닥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이 포함됐다.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한 158개사는 전기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으며, 353곳은 적자가 지속됐다.

코스닥150지수 편입기업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5%, 17.81% 증가했다. 코스닥150지수 편입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49%로 미편입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2.39%보다 4.1%포인트 높으며, 전년 동기 대비 0.80%포인트 수준의 소폭 개선세를 보였다.

전년 동기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6%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6.4% 증가했다.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88%로 미편입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3.11%보다 3.7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코스닥 CEO 인터뷰

김진태 유투바이오 대표

"유투바이오가 맞춤형 헬스케어(Healthcare)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

국내 유일의 헬스케어 IT/BT 융합기업인 유투바이오가 데이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김진태 대표가 이끄는 유투바이오는 2009년 창업 이후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하며 2023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대표는 "일상 속에 스며든 데이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파트너가 되겠다"는 비전을 밝히며 회사의 미래를 내다봤다.

2000여개 병·의원, 검진센터에
 체외진단검사 서비스 제공 중

진단·검진·EDC 플랫폼 구축
 3개 독보적 영역으로 성장 기대

창업 배경을 묻자 김 대표는 1992년 메디슨 사내벤처에서 출발해 유비케어를 창업하고 SK그룹에 편입시키기까지 책임경영을 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는 "전자의무기록(EMR) 기반의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기존 주요 스타트업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유투바이오는 ▲진단사업 ▲IT사업 ▲BT사업의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진단사업은 병·의원 및 건강검진센터를 대상으로 체외진단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전국 2000여개 병·의원과 거래 중이다. IT사업은 건

강검진센터용 종합 관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며, 유지보수 및 진단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한다. BT사업은 연구임상, 체외진단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허가임상, 건강기능식품 유효성 검증 등을 수행하며, 장내 미생물 검사 기반 맞춤형 유산균 공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유투바이오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IT와 BT를 결합한 독자적 서비스 모델이 있다. 김 대표는 "기존 대형 검사 수탁기관들과 경쟁해야 하는 레드오션 시장에서 유비케어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IT 역량을 접목해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유투바이오는 2020~2022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수도권 10여 개 보건소에 코로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난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김 대표는 "2023년 308억원, 지난해 250억원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올해 새로운 전략을 통해 확실한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 성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진단 플랫폼 ▲검진 플랫폼 ▲전자 데이터 수집(EDC)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진단 플랫폼은 국내의 진단·의료기기·바이오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검진 플랫폼은 전국 건강검진센터 인프라 위에 구축될 예정이다. EDC 플랫폼은 대한혈액학회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김 대표는 "이 사업들은 유투바이오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인 영역"이라고 자부했다.

[김대환 기자 kdh@

코스콤, 신용정보원 IT인프라 개편 착수

보안·안정·확장성 견비 업그레이드
 효과적 업무개발 지원 기반도 추진

코스콤이 국내 유일의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시스템 혁신을 돕는다.

코스콤은 '신정원 차세대 IT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을 수주하고, 본격적인 신용정보시스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신용정보원의 IT 시스템을 클라우드 중심의 유연한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날로 복잡해진 데이터 유통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은 2025년 3월부터 약 15개월 동안 진행된다.

전체 사업은 업무개발 분야와 인프라 구축 분야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뉘며, 코스콤은 인프라 구축을 전담한다. 이는 앞서 지난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10개월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1단계 사업'의 연장선이다. 당시 코스콤이 수행한 기술 설계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시스템 전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코스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용정보원의 차세대 시스템을 보안성·안정성·확장성을 견비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지난 3월 3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정보원 차세대 IT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이승범 코스콤 전무, 윤창현 코스콤 사장, 최유삼 신용정보원장, 유인지 코리아엑스퍼트 대표이사, 염동훈 메가존클라우드 대표이사.

드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코스콤은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인프라를 구성하고, 탄탄한 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운영 인프라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기존 시스템보다 안정성과 확장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 향후 업무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 작업도 추진한다. 개발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도 설계한다. 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관리 체계도 마련해 업무 개발 담당 기업과의 협업 시너지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코스콤은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

가능형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유통 허브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력을 이번 사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은 첨단 디지털 인프라 기반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지난 2023년 진행된 1단계 구축사업에 이어 이번에 다시 함께 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은 한국신용정보원이 미래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스콤은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의 디지털 전환 여정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상법개정 '직' 걸었던 이복현, 사의표명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만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금융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의 표명을 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만류했으며,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전화를 걸어 사의 표명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거취 문제와 관련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 여부도 무시할 수 없다"며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직접 대통령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